

道 대규모 국책사업 밑그림 그린다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 출범 30년 단위 중장기 미래 발전상 제시

전북도는 Post 새만금을 대비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산업 분야별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한다.

18일 기획단은 행정·정무 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5개 분야(농업농촌, 제조업, 문화·관광, 지식·서비스,

SOC·지역개발) 12개 산업별 TF와 조정 지원을 위한 기획조정협의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별 TF는 농생명, 농식품, 미래신산업, 탄소소재산업, 문화콘텐츠, 문화관광 등 12개 세부분야로 나누어, 각 출연기관장을 중심으로 연구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획조정협의회는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출연기관, 대학 관계자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실무 지원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도청 국·과장, 팀장, 주무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혁신과 비전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산업 분야별 진단을 통해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분야별 쉼터점프를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TF에서는 주요 산업의 현 주소와 성장가능성을 진

단, 기존 산업의 활성화 방안,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 분야 발굴 등을 통한 30년 단위의 중장기 미래 발전상을 제시, 해당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한다.

기획조정협의회에서는 산업별 TF에서 논의된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를 조정하고 정책화 방안에 대한 자문 및 추가 사업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총 8주(2018년12월19~29일)간 운영된다.

/김진성 기자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용합 홀로그램(HR)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춘석, 신경민, 백승주, 신상진 국회의원,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우병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은수 광운대학교수 등 참석자들이 조용합 홀로그램 산업발전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초융합 홀로그램산업 활성화 시동

선포식·세미나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및 경상북도와 함께 18일, 국회에서 관련 국회의원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초융합HR 선포식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과기부가 미래 국가 경제를 견인할 초융합HR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부에서는 홀로그램을 디지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K-ICT 디지털콘텐츠 5대 기술로 선정, 정책 및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초융합 HR[홀로현실] 산업발전전략 방안(안)'을 마련했다.

AR/VR 등의 등장으로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전산업+ICT융합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홀로그램은 자동차, 교육, 문화 등 전 산업에서의 프리미엄화와 新서비스를 창출하는 초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게임/엔터테인먼트를 이끌던 VR/AR은 홀로그램 초융합에 따른 단말과 콘텐츠 기술극복을 실현하며 인간친화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환경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로의 콘텐츠 新시장이 확대되는 초융합 HR(홀로현실)로 발전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간 중심적 초융합HR(홀로현실)을 위한 미래 혁신기술(AI, IoT, Cloud,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타산업 연계형 홀로그램 성장지원 ▲산업인프라 강화 ▲생태계변화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전북, 경북)와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세부계획에 대한 지역 및 산학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VR/AR분야의 차세대융합콘텐츠 활용을 확대할 HR 콘텐츠 서비스 도출 및 추진을 위한 5대 선도 서비스 모델(△차량용 HR, △공간형 HR, △유통형 HR, △공공안전 HR, △문화유산 HR)을 발굴하여 소개했다.

과기부는 이번 선포식 및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초융합 HR(홀로현실) 산업발전전략 방안(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전북, 경북)와 협력, 2018년 상반기에 예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세미나 격려사에서 "초연결·초지능 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 콘텐츠 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등 관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역의 현재를 조망하여 향후 초융합 HR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개발 급물살 탈 듯” 기대감

공공주도개발 추진체계 완비 주요 SOC 예산 대폭 증액 등

전북도는 18일 2017년 제3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열었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그동안 각계의 道의 주요 인사로 구성되어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객관적 증빙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 지원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규 공기업 설립에 따른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사 설립 추진준비단 구성에 대비해 조직구성 및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제시됐다.

공사의 업무를 큰 틀에서 매립사업, 개발사업, 수익사업, 투자유치, 공사관리로 구분,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역할과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

하므로 공사의 핵심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화를 제안했다.

또한 새만금관련 투자유치 활동의 경우 관련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골목길 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공사의 투자유치 활동에 명확성,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원화, 6대 용지별 추진체계 완비된 만큼 용지별 사업시행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대응 및 조정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민간중심의 용지 개발을 공공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주요 SOC의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확보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계기로 새만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새만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황현 도의장, 구세군 모금활동 동참

황현(익산3·사진) 전북도의회 의장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봉사활동에 나섰다.

황 의장은 18일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위치한 세이브존 앞 광장에서 직접 사랑의 종을 울리며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 달라"고 외치며 거리



모금 운동을 펼쳤다.

황 의장은 "우리의 불우이웃들이 온정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연말연시 사랑의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모금 장소에는 전주불교교회 어린이집 원생들이 한푼 두푼 모은 사랑의 저금통 10여개를 직접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시민들 역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구세군 자선냄비에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김진성 기자

‘여성의 삶과 정치, 공감토론회’ 열려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18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여성의 삶과 정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 된 이번 토론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인 박주현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김선호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양혜숙 김

제 부안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이혼시 양육비 미지급 경우, 국가가 선지급 후 추심 ▲조부모 손주 돌보미 사업 등 2가지다.

박주현 전국여성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일, 가정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대안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전북지역에 산적한 지역 이슈를 함께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